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3장 성경의 영감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3장 「성경의 영감」, 텍스트판 55-72쪽. 원 논문은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Bibliotheca Sacra* 51 (1894)이다.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19세기 말의 혼란에서 출발한다. 그때 '영감'에 관한 새 이론이 쏟아졌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을 말한다. 새 이론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높은 영감 교리'를 끌어내린다는 점에서만 같다. 그 맞은편에는 교부, 종교개혁자, 청교도, 19세기 신학자, 여러 신조로 한결같이 이어진 '교회의 영감 교리'가 서 있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라는 두 '낮은 영감' 흐름도 이 교리를 몰아내지 못했다. 이 교리가 교회의 것이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길게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믿는 학자든 안 믿는 학자든, 심지어 이 교리를 피하려는 사람까지 신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래서 진짜 쟁점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나'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 참인가'다. 워필드는 교회가 이 교리를 놓지 않은 본능이 옳았다고 본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사도들 편에 서는 쪽이 안전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 절별 정리

📜 1. 교회의 영감 교리

1890년대 무렵 『영감, 그리고 다른 강연들』,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영감하셨을까?』, 『하나님의 신탁』 같은 책이 줄지어 나왔다. 워필드는 이 책들을 모아 읽으면 바벨탑처럼 목소리가 뒤엉킨다고 말한다. '진보 사상가'들은 다섯이 모이면 이론이 여섯 개 나올 만큼 제각각이다. 그래도 세 가지에는 모두 동의한다.

성경의 가르침 일부는 거부해도 된다. 결국 그들은 높은 영감 교리를 공격하는 데서만 하나가 된다.

그 맞은편에 '교회의 영감 교리'가 있다. 이 교리는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며, 시대 따라 바뀌지도 않는다. 그러니 진리를 찾는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내용은 단순하다. 성경은 '신탁의 책'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담은 책, 곧 성경이 진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책이라는 뜻이다. 애써 뒤져야 하나님 말씀을 조금 건지는 책이 아니다.

워필드는 독자의 경험에도 호소한다. 어머니 무릎에서 함께 읽던 성경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문병과 조문 자리, 낙심한 동료를 위로하던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던 그 전적인 신뢰가 바로 교회가 처음부터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다. 문헌 증거도 댄다. 이 교리에 비판적인 샌데이조차 이 생각이 “거의 초창기부터” 있었다고 인정했다. 워필드는 '거의'라는 말도 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폴리캅, 이레나이우스,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러더포드, 백스터, 찰스 핫지, H. B. 스미스의 같은 고백을 차례로 늘어놓는다.

1. 새 이론들은 '높은 교리 반대'에서만 일치
2. 교회의 교리는 개인 것 아님, 처음부터, 불변
3. 성경은 '신탁의 책': 진술 전부가 하나님 말씀
4. 비판자 샌데이도 '초창기부터'라고 인정
5. 폴리캅에서 핫지까지 같은 고백이 이어진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구절 대신 교회사의 증언을 차곡차곡 쌓아 근거로 삼는다

> **로마서 3:2**
> (정리자 보충)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신탁)을 맡았다는 표현이다. '신탁의 책'이라는 말의 성경적 뿌리다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성경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주석가들의 작업에서 드러난다. 초대교회에는 알레고리 해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알레고리 해석은 본문 뒤에 숨은 영적 뜻을 찾아내는 해석이다. 워필드는 이것이 잘못된 열매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도 본문을 하나님의 발화로 경외한 데서 나온 열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오늘날 학자들은 열심은 같아도 '모든 세부가 귀하다'는 근본 관점을 버린 경우가 많다.

워필드는 대조되는 학파를 든다. 조엣 학파는 의심을 품고 바울을 파헤쳤다. 벵겔 학파는 성령이 말씀에 숨겨 둔 '꿀'을 찾아 성도를 위로하려 했다. 웨스트코트는 요한서신을 파고들수록 신뢰가 자랐고, 히브리서를 40년 연구하며 단어와 어순의 미세한 차이에서 뜻을 찾았다. 위스타 핫지는 웨스트코트의 이 고백을 '축자 영감'의 확실한 증언이라 불렀다.

신조도 같은 믿음을 공식화했다. 고대 신앙고백의 “성경을 따라”라는 문구가 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고백한다. 로마 교회의 트리엔트 공의회와 바티칸 공의회는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로 선언했다. 개신교 쪽에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1530)가 있다. 워필드가 사람이 쓴 것 가운데 가장 완전한 진술이라고 극찬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다. 이 고백서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직접 영감하셨으므로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반박을 받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규정을 나누려고 머뭇거린 일이 있다. 샌데이는 이 일을 두고, 그때는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지금보다 드물었다고 평했다.

1. 알레고리 해석도 본문 경외에서 나왔다
2. 벵겔·웨스트코트: 단어까지 귀히 여긴 주석
3. 단어와 어순 연구는 축자 영감의 증언
4. 고대 신경부터 웨스트민스터까지 같은 전제
5. 로마 교회 공의회도 '하나님이 저자'라 고백

> **고린도전서 7:10-12**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고린도전서 15:3-4

(정리자 보충) 고대 신조의 “성경을 따라(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온 곳이다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3. 낮은 영감 교리

교회사에는 영감을 낮추는 두 흐름이 있었다.

첫째는 합리주의적 견해다. 성경 안에서 영감된 부분과 영감되지 않은 부분을 가르려는 시도다. 인문주의자들이 시작했고, 소치니파가 들여왔으며, 독일 혼합주의자, 화란 항론파, 로마 교회 예수회가 썼다. 18세기에 초자연 신앙이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일 때,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조차 이 견해를 택했다. 워필드는 이를 성루를 지키려고 바깥 기지를 적에게 내주는 군대에 빗댄다. 19세기 변증가들 사이에서는 세 형태가 유행했다.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만 영감되었다는 형태, 믿음과 실천에 관한 것만 영감되었다는 형태, 단어가 아니라 사상만 영감되었다는 형태다. 워필드는 이에 맞서 '완전 영감'을 정의한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신비, 믿음·실천과 역사·과학, 사상과 단어까지 모두 똑같이 영감되었다는 뜻이다.

둘째는 신비주의적 견해다. 그리스도인 안에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모든 '외적 계시'를 심사한다고 보는 생각이다. 그 기준은 계몽된 이성, 영적 통찰, 기독교적 의식, 성령의 증언 등으로 불린다. 극단적인 형태는 교회 밖의 분파를 만들었다. 슐라이어마허 이후에는 이 견해가 개신교 전반에 홍수처럼 퍼졌다. 그 결과 '마음에

그러나 두 흐름 모두 교회의 신조와 성도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교리를 곧바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수 세기 동안 지켰을까? 답은 한 문장이다.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1. 합리주의: 영감된 부분만 골라내려 한다
2. 신비주의: 내 안의 기준이 성경을 심사한다
3. 완전 영감: 역사·과학·단어까지 모두 영감
4. 두 흐름 모두 교회의 신앙을 바꾸지 못했다
5. 교회 교리의 뿌리는 예수님과 사도의 교리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역사 개관이다. 성경 근거는 다음 절(4절)에서 다룬다

> **디모데후서 3:16**
> (정리자 연결) '모든 성경'이라는 말이 '부분 영감'과 맞선다. 저자는 4절에서 이 구절을 완전 영감의 본문으로 든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회의 교리이기 이전에 성경의 교리였고, 오직 성경의 교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 4-1. 완전 영감 교리 ① 길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

워필드는 지면 탓에 이 교리가 성경의 교리임을 하나하나 증명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증명이 필요 없다. 신약 저자들에게 '성경'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한마디가 곧 논쟁의 끝이었다. 모든

둘째, 학자들에게도 증명이 필요 없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학자들은 신약 저자들이 높은 영감 교리를 가졌다는 데 동의한다. 좀 더 복음적인 톨룩·로테·파라도, 극단적인 리임·로이스·플라이더러·쿠넨도 같은 답을 한다. 워필드는 '진보' 학자 헤르만 슐츠를 인용한다. 슐츠는 후기 시편, 정경 밖 유대 문헌, 신약 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성경을 '언어까지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다고 인정했다.

셋째, 이 교리를 피하려는 사람들조차 논증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한다. 몇 가지 예가 있다.

- 샌데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견해를 공유한 사람들을 거쳐 전해졌다고 말한다.
- 케노시스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며 시대의 지식에 갇히셨다고 말한다.
- 적응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편의상 당시 언어를 빌려 썼다고 말한다.
- 예수님은 직접 글을 쓰지 않으셨으니 기록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이 교리는 신약의 몇몇 학문적인 문서에서만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성경의 '현상'을 끌어와 성경의 가르침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성경의 자기 증언은 순환 논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회피는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은 오히려 여러 시대에 걸쳐 진리를 펼쳐 온 성경의 본성과 맞아떨어진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좁혀진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 참이냐다.

1. 신약에서 “기록되었으되”는 논쟁의 끝이었다
2. 믿든 안 믿든 학자들은 신약의 교리라 인정
3. 반대자 슐츠도 '언어적 영감'이라 인정
4. 케노시스·적응설도 교리의 존재를 전제한다
5. 쟁점은 '무엇을 가르치냐'가 아닌 '참인가'

신약에서 '성경'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를 보여 준다. 저자는 장절 없이 “폐하지 않는 말씀”으로 언급한다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마태복음 4:4

(정리자 예시) “기록되었으되”(γέγραπται, 기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탄의 시험을 끝내시는 예수님의 방식이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쟁점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참인가의 문제이다.”

📜 4-2. 완전 영감 교리 ② 본문의 산사태

어떤 사람들은 완전 영감을 가르치는 몇몇 본문을 억지 해석으로 무력화하려 한다. 대표적인 본문은 셋이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바울의 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다는 베드로의 말이다. 샌데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어려운 구절'이라고 불렀다. 비유로 읽어도 될 말까지 참으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듯하다는 이유였다. 워필드는 이렇게 답한다. 그 '어려움'은 본문에 있지 않다. 성경의 세부까지 단순하게 신뢰하신 주님의 태도를 주석가들이 꺼리는 데서 생긴다.

더 큰 오해도 있다. 성경이 몇몇 두드러진 본문에서만 완전 영감을 증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본문들은 신약 전체를 채운 증언의 꼭대기일 뿐이다. 귀납적으로, 곧 여러 사례를 모아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살펴보면 다음 현상들이 보인다.

- 성경에 붙인 장엄한 이름이 있다. '성경', '하나님의 신탁'.

- 인용할 때 쓰는 문구가 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신약 저자들은 “성경이 이르기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과 같은 뜻으로 쓴다. 이야기 부분도 하나님의 직접 발화로 다룬다.
- “성경이 미리 알고” 같은 표현은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돌린다.
- 성령이 저자로 나타나고, 사람 저자는 표현의 통로로 다뤄진다.
- 성경 말씀에 경외와 신뢰와 권위가 주어진다.
-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전적으로 복종하는 태도가 신약 전체에 흐른다.

워필드는 이를 산사태에 빗댄다. 실험실에 앉아 돌 하나하나의 경로를 계산하면 다 피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산사태는 돌을 하나씩 순서대로 보내 주지 않는다. 수십, 수백 구절이 한 덩어리로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 증거를 설명해 내려면 신약 전체를 설명해 내야 한다. 그러니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 왔다는 것을 현대 학문이 인정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교회의 교리는 성경 교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대표 본문 셋: 요한복음 10장·디모데후서 3장·베드로후서 1장
2. 그 본문들은 신약 전체 증언의 꼭대기일 뿐
3. '성경이 이르기를' =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 수백 구절이 산사태처럼 한꺼번에 덮친다
5. 교회 교리는 성경 교리를 그대로 옮긴 것

> **요한복음 10:35**
>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주님이 성경 세부까지 신뢰하셨다는 증거다. 샌데이가 '어려운 구절'이라 부른 바로 그 본문이다
>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바울의 완전 영감 선언이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의 선언이다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로마서 3:2

(정리자 예시) 성경을 '하나님의 신탁'(λόγια)이라 부르는 명칭의 예다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17

(정리자 예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똑같이 다룬다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8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에 하나님의 앞지식을 돌리는 표현이다. 저자는 문구만 들었고, 장절은 정리자가 붙였다

>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9:4-5

(정리자 예시) 창세기 2:24의 해설자 문장을 '창조하신 이'의 말씀으로 인용한다. 이야기 부분도 하나님의 발화로 본다는 예다

>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히브리서 3:7

>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 4-3. 완전 영감 교리 ③ 교회는 왜 이 교리를 놓지 않았나

교회가 성경의 모든 교리를 이렇게 꾸준히 붙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영감 교리만은 한결같이 지켰을까? 교회에는 본능적 감각이 있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는 교리도, 그리스도인이 복음 약속에서 얻는 소망도 성경의 신뢰성 위에 서 있다는 감각이다.

워필드는 반론 하나를 정직하게 인정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독교 진리는 영감 교리보다 먼저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댄다. 기독교의 초자연적 기원과 내용은 영감 이론과 상관없이, 그보다 먼저 역사적으로 입증된다. 이것은 변증가, 곧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와 증거로 변호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점이다.

그래도 교회의 본능은 옳다. 이유는 셋이다.

첫째, 보통 그리스도인은 역사학자가 아니다. 학자는 역사적 입증을, 교사는 믿을 만한 기록을, 신자는 손 닿는 곳에 있는 믿을 만한 성경을 원한다. 하나님은 셋 모두를 주셨다.

둘째, 역사적 입증만으로는 모든 세부 가르침과 약속을 떠받칠 수 없다. 기독교는 사람의 오해와 과장과 축소가 섞인 채로 수 세기를 거쳐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필요하다.

셋째, 성경 신뢰를 버리고 역사적 입증에만 기댈 수는 없다. 역사가 입증하는 계시 안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 있다. 그 가르침에 완전 영감이 포함되어 있다.

워필드는 이어서 주관주의 사상가들을 비판한다. 이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감정에 있으니 객관적 신앙 규범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본질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거의 없다. “외적 권위는 영적 진리에 비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주장은 바깥 세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은혜 약속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모노의 말처럼, 내 판단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둘 중 무엇일까? 우리와 같은 약점을 지닌 사람이 전해 주는 말씀일까? 교회나 전통이 중간에 서서 이어 주는 길일까? 둘 다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과 손을 통해 직접 하신 말씀이다.

1. 교회의 본능: 교리와 소망은 성경 신뢰 위에
2. 초자연적 기독교는 영감보다 먼저 입증된다
3. 그래도 보통 신자에겐 믿을 만한 성경이 필요
4. 역사적 입증이 오히려 완전 영감을 입증한다
5. 외적 권위 없이는 믿음도 소망도 흔들린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성경 구절보다 논리와 그리스도인의 경험(모노의 증언)으로 논증한다

> **베드로후서 1:21**
> (정리자 연결) “사람의 입술과 손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저자의 표현이 이 구절의 내용과 겹친다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4-4. 완전 영감 교리 ④ 성경 없는 세상, 그리고 '어려움'

워필드는 영감된 성경이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풍랑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능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이다. 성경은 세상 문학의 일부가 아니다. “태초에”부터 “아멘”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에 성경은 세상을 살리는 누룩이 되었다. 가디너 스프링은 성경이 도덕, 사회제도, 종교 자유, 노예제 폐지, 여성의 지위, 학문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추적했다. 모노는 성경이 개인의 성품을 빚어 온 과정을 보여 주었다.

워필드는 신중하게 한발 물러선다. 성경이 없었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인정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 덕분이다. 성경이 있었는데도 1,500년쯤 지나자 깊은 어둠이 왔다. 그때 성경을 재발견한 루터와 종교개혁이 필요했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온전히 들렸을까? 그것이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고 누가 확신시켜 주었을까? 쌓여 가는 오염에서 누가 그것을 깨끗이 지켰을까?

워필드는 세 가지 사실로 정리한다. 이 교리는 늘 교회의 교리였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다. 기독교적 사고와 삶의 기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도, 성육신도, 나 자신과 바깥 세계의 존재도 믿으려면 어려움이 있다. 다이크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이해된 뒤에야 믿고 순종하려 하면 출발조차 할 수 없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어려움이 더 큰가, 아니면 다른 쪽 어려움이 더 큰가? 다른 쪽이란, 교회 전체가 처음부터, 사도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성경의 본성에 대해 속았다고 믿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편에 서는 것이 언제나 안전하다.

1. 성경은 '태초에'부터 '아멘'까지 생명의 책
2. 성경 없이 그리스도? 불가능이라 단정은 않음
3. 실제로 우리는 성경 덕분에 그리스도를 안다
4. 모든 믿음엔 어려움이 있다: 더 큰 쪽을 묻자
5. 그리스도와 사도들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

> **마가복음 4:39**
>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경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능력의 목소리다. 저자는 장절 없이 인용한다
>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 **창세기 1:1 / 요한계시록 22:21**

골로새서 1:27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성경 덕분에 소유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대목의 표현이다. 장절은 정리자가 붙였다

>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디모데전서 1:15

(정리자 연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대목의 배경이다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다. 바울이 쓴 헬라어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 연구는 이 책의 다른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장 번호 확인 필요).

완전 영감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역사·과학과 단어까지 똑같이 영감되었다는 가르침이다.

축자 영감

생각만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가르침이다. '받아쓰기'와는 다른 말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는 성질이다. 이 번역서는 infallible도 '무오'로 옮긴다. 불오성(그릇 이끌 수 없음)과 겹쳐 쓰인다. 백스터는 오류가 있다면 필사자나 번역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탁'(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은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자신의 이름이다.

정경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성경 목록(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다.

알레고리 해석

본문의 글자 뜻 너머에 숨은 영적 의미를 찾는 해석법이다.

케노시스

'비우심'이라는 뜻이다(빌립보서 2:7). 19세기에는 이 말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며 신적 지식을 내려놓고 시대의 한계에 갇히셨다는 이론이 나왔다.

적응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진리를 가르치려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생각에 맞춰 당시 표현을 빌렸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기독교적 의식·외적 권위

기독교적 의식은 신자 내면의 종교 감각을 말한다(슐라이어마허 계열의 기준). 외적 권위는 내 판단 바깥에서 나를 다스리는 권위, 곧 성경을 말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완전 영감은 몇몇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 전체의 신앙이다.
- 교회가 이 교리를 가진 이유는 단순하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 쟁점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 참인가다.
-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소망은 믿을 만한 성경이라는 외적 권위 위에 선다.
- 어려움은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와 사도들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9편 ·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 · 영감 교리의 역사와 비평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